

24일 포천축협장 선거 양기원 이한인 兩者대결

오는 24일 실시되는 포천축협장 선거는 현 조합장인 양기원 후보와 20여년의 축협근무 경력을 가진 이한인 후보간 양자대결로 가려질 전망이다.

포천축협장은 2천여명의 조합원들의 직접 선출하며, 24일 선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5개 선거구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재선에 도전하는 양기원 후보는 1959년생으로 포천초등학교와 포천중학교 졸업한 후 포천중고를 거쳐 오는 2월 경북대 경영학과를 졸업한다.

양 후보의 주요경력에는 ▶포천축협 대의원 및 이사 역임 ▶영중농협 대의원 ▶포천시 양계협회 운영위원 및 회장 역임 ▶포천시 퐁골레라 방역담당 ▶포천시 청년회 소 회장역임 ▶포천초등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포천중고 운영위원장 ▶농협중앙회 대의원 ▶농협중앙회 후분과위원 등이다.

양 후보는 또 농협중앙회로부터 포천축협 업적평가 우수상 표창과

지방스런 경기농협 조합장을 수상한 바 있다.

양 후보의 공약사항은 ▶조합원으로부터 사랑받는 축협을 만들겠습니다 ▶열려있는 축협, 변화하는 축협, 봉사하는 축협을 만들겠습니다 ▶원칙을 지키며 변화하는 축협을 만들겠습니다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무한경쟁시대 대비하겠습니다 ▶조합원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축산인의 꿈! 함께 하는 축협을 구현 등을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양 후보는 출마동기에 대해 지난 4년 동안 포천축협을 이끌어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확대하여 경쟁력있는 조합을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다.

또 양 후보는 현재 추진중인 마출촌 사료의 브랜드화 사업 및 직원 농가방문 컨설팅 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에게 생산성 향상을 통해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이한인 후보는 포천초



양기원 후보

등학교와 포천중학교를 거쳐 포천 동지부장 ▶포천시 씨름협회 부회장 ▶포천의제21 실천협의회 운영위원 ▶포천동 체육회이사 등이다.

이 후보는 또 경기도지사 상장을 받은 것을 비롯해 포천군수 표창, 포천시의회 의장 표창 등을 수상한



이한인 후보

바 있다. 이 후보의 공약사항은 ▶신용사업 활성화로 안정적인 축협육성 ▶저렴하고 품질 좋은 배합사료공급 방법 다양화로 생산비 절감 ▶육아공 공장 대기업 경영기법 도입으로 경영의 극대화 ▶폐사축,분뇨수거 폐비화 처리시설 건립으로 생산농가 부담축소 및 친환경축산기반 조성 ▶저리축산자금 확보로 조합원 대출금리 인하추진 ▶조합원 경조사비 및 장학금제도 확 등이다.

이 후보는 출마동기에 대해 20여년 동안 축협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축협을 제대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축협의 예산절감과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축협장이라는 권위주의의식을 갖지 않고 축협에 관련된 사항이라면 모든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하승남 기자 forme65@paran.com

우리 동네를 말한다 ⑤2

관인면 삼율리 이장 윤영훈

두릅나무 식재로 임업 생산성 높여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는 지장산을 끼고 있으며, 강원도 철원군과 인접하고 있다.

삼율리는 밤(栗)과 관련된 지명으로 밤나무골이란 지명을 가진 마을이 대표성을 갖고 불려졌기 때문에 유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밤나무골은 과거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 알려진 지명이었으나, 골짜기가 깊어 사람들이 다 떠나고 지금은 지명만 존재하고 있다.

삼율리는 모두 5개반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 지명은 맥동(1·2반), 장수동(3반), 은하동(4반), 북바위(5반)로 불리고 있다. 맥동은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잘며, 벼라부자자 된다는 유래가 있으며, 북바위는 마을에 있는 바위가 북쪽을 향했기 때문이거나 북처럼 생겼기 때문에 지어진 지명이다. 장수동과 은하동의 지명유래는 아는 이가 없다.

삼율리 새마을지도자를 거쳐 지난해 처음 마을일을 돌보게 된 윤영훈(46) 이장으로부터 마을현황 및 발전상을 들었다.

삼율리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가구수는 모두 134가구로 1월 현재 31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60

여명, 55세에서 65세 사이가 60여명으로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 중이다.

경제생활은 수도작과 낙농, 밭농사를 통해 이루고 있는데, 마을주민 대부분은 수도작을 위주로 농사를 짓고 있으며, 그 외 젓소 사육과 친환경사업의 일환으로 재배하는 콩이 마을의 주 생산품이다.

한편, 마을에는 15년째 내려오는 마을 체육대회가 마을의 유일한 행사이다. 제작년까지 매년 7월 17일에 개최되었던 체육대회는 마을의 화합과 안성을 위해 개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제작년부터 관인 중·고 동문회 위주로 농사를 짓고 있으며, 그 외 젓소 사육과 친환경사업의 일환으로 재배하는 콩이 마을의 주 생산품이다.

윤 이장은 삼율리 주민들과 의견을 조율해 적당한 날을 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삼율리 자체의 청년회를 기대해도 좋을 듯 하다. 지난해 두릅나무 식재로 바쁜 한해를 보낸 주민들이지만 최근 마을의 중요한 행사를 치르려는 마음으로 삼율리는 관인농협의 지원으로 지난해 대단위 두릅나무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농협특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번 사업은 삼율리와 종리에 각각 5만주씩 식재하는 것으로 삼율리는 시가지 포천시 산림과와 협조해 7천평을 임대해 1만주를 식재했으며, 4만주는 마을의 임야 4만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식재했다.

윤 이장은 "이번 사업은 마을의 상당부분이 임야로 구성된 현실에서 대부분의 나무가 낙엽송 등 부가가치가 없는 것으로, 최근 두릅나무가 웰빙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데다 관인농협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삼율리는 올해 임야 5천평을



윤영훈 이장
관인면 삼율리

더 신청해서 사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생산성을 감안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삼율리는 윤영훈 이장을 중심으로 임순빈 노인회장, 현종관 새마을지도자, 김현숙 부녀회장, 최태환 영농회장이 하나로 뭉쳐 어려운 농촌현실을 극복하는 지혜와 마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장과 반장 등 15명으로 구성된 개발위원회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마을에는 15년째 내려오는 마을 체육대회가 마을의 유일한 행사이다. 제작년까지 매년 7월 17일에 개최되었던 체육대회는 마을의 화합과 안성을 위해 개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제작년부터 관인 중·고 동문회 위주로 농사를 짓고 있으며, 그 외 젓소 사육과 친환경사업의 일환으로 재배하는 콩이 마을의 주 생산품이다.

윤 이장은 삼율리 주민들과 의견을 조율해 적당한 날을 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삼율리 자체의 청년회를 기대해도 좋을 듯 하다. 지난해 두릅나무 식재로 바쁜 한해를 보낸 주민들이지만 최근 마을의 중요한 행사를 치르려는 마음으로 삼율리는 관인농협의 지원으로 지난해 대단위 두릅나무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농협특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번 사업은 삼율리와 종리에 각각 5만주씩 식재하는 것으로 삼율리는 시가지 포천시 산림과와 협조해 7천평을 임대해 1만주를 식재했으며, 4만주는 마을의 임야 4만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식재했다.

윤 이장은 "이번 사업은 마을의 상당부분이 임야로 구성된 현실에서 대부분의 나무가 낙엽송 등 부가가치가 없는 것으로, 최근 두릅나무가 웰빙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데다 관인농협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삼율리는 올해 임야 5천평을

지혜백 기자 94spice@hanmail.net

금강산 해금강 해맞이



김영복 본지 편집국장

고성에서 북녘 땅으로 들어가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들은 모두 중국 연변에서 온 우리 동포라고 한다. 현대아산(주)에서 채용한 직원들이다. 해맞이 행사를 위한 관광객이라 1호차에 탑승했다. 1호차 기사는 모든 기사의 반장이라고 한다. 버스 기사님이 먼저 반갑게 맞이하는 인사가 다소 긴장된 분위기를 부드럽게 했다. 드디어 금강산으로 향하기 위해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버스가 운사본계선을 지나 북측방향으로 진입하자 다시 모든 짐과 관광객에 대한 검색이 실시된다. 군복을 입은 북한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다소 이방인처럼 느껴졌지만 같은 언어를 구사한다는 점에서 반갑다. 검색대를 통과하여 다시 버스에 탑승하자 버스는 운전각으로 향했다.

고성에서 온정각까지는 불과 50분 거리다. 온정각에서 내려 현대백화점이 운영되고 있는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관광상품판매장을 둘러보고 나서 숙소인 호텔 금강산으로 향했다. 호텔 금강산은 북측에서 운영하는 호텔이다. 북측 사람들의 다소 경직된 표정이 부담스럽다.

이튿날 호텔에서 제공한 아침식사를 했다. 북측에서 직접 운영하는 호텔이라 음식 맛도 좋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밥맛도 그렇고 반찬도 입에 맞지 않았다. 식사 후에는 산행을 위해 출발

했다. 이날 산행은 구룡연 코스로 목란관-수림대-양지대-삼폭수-금강문-옥류동-연주담-구룡폭포-상팔담 왕복 8.6km 구간이다. 눈이 약간 내려서 올라갈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내려오는 길은 미끄러워 힘들었다. 이날은 2005년 12월 31일이다. 2005년의 마지막 날 산행의 의미는 각자 다를 것이다. 그러나 통일되지 못한 조국, 그것도 남측에서 온 사람들이 북측에 있는 금강산 등산에 나설 수 있다는 사실자체만으로도 감동 받기에 충분하다.

오후에는 선택이다. 삼일포 관광 혹은 온천욕이다. 오전 산행에 지쳐 온천욕을 선택했다. 금강산 온천욕은 오전의 산행의 피로를 풀기에는 그만이다. 오후 4시부터는 온정각 금강산문화회관에서 평양모란봉예술단의 기예공연을 관람했다. 1시간 남짓 진행된 공연은 손에 땀을 쥐게 했고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했

다. 기예공연을 통해 '하나'라는 의식적 표현이 진부하면서도 뜨겁게 다가 온 것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다.

드디어 대망의 2006년 새해 새 아침은 금강산 해금강에서 시작했다. 7시46분 예정이었던 일출은 구름 때문에 보지 못했다. 10여분이 지난 뒤 구름위로 떠오른 첫 태양은 장관이었다. 손에 손에 촉불을 들고 해맞이 나온 관광객들은 모두 새해 소망을 빌었다. 이렇게 시작된 새해는 만물상으로 이어졌다. 충암절벽과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산악미가 인상적이라는 만물상은 금강산 관광코스라 할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해맞이 행사로 다소 시간이 지연돼 가까운 삼선암 등반으로 만족해야 했다.

이번 2박3일간 금강산 해맞이 관광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다. 첫째, 새해를 금강산에서 시작했다. 둘째, 울 한해 건강하게 모든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었다. 둘째, 7국통일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7천만 한민족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산행중에 누군가 바위에 살짝 내린 눈 위에 새긴 '조국통일'이란 글씨가 기억에 남는다. 셋째, 금강산관광으로 남북한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 현대아산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금강산관광을 통해 통일시대를 앞당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천주교 信者 총장 절대 불가'

종단 대순진리회 임원 700여명 출근저지

대진대학교가 신년초부터 천주교 신자를 총장으로 선임했다며 종단 임원들이 출근을 저지하고 이사회에 즉각 해임조치하고 새로운 총장 선임을 요구하고 나서 사태의 추이가 주목된다.

대진대학교에 따르면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22일 이사회를 열어 신임총장으로 이원우 전 교육부 차관을 선임하고 2006년 1월 1일자로 임명키로 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종단 대순진리회 임원들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선임된 이 총장이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종교의식을 행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만큼 총장선임을 철회하고 새 총장을 선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신임 이 총장은 지난 2일 출근했고 종단 대순진리회 임원들은 출근을 저지해 결국 총장실에 들어가지 못한 채 돌아가야 했다. 다음날 3일에도 역시 출근을 시도했지만 종단 대순진리회 임원들의 강력한 저지로 총장실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법인사무실에서 교무처장이 총장직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싸인을 한 뒤 돌아갔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종단 대순진리회 임원들은 "우리는 이원우를 총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문건을 통해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단 직원을 뽑을 때도 도인의 증명을 요구하는 학교에

서 그 수장인 총장을 뽑으면서 이를 무시하였다 말입니다. 이것은 종단의 창립이념과 이를 신임하는 모든 도인들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원우 씨가 사퇴할 때까지 온 힘을 모아 저항할 것이며 그러한 인사를 총장으로 뽑은 이사들의 책임을 끝까지 물으겠다"고 주장했다.

또 대진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대학의 총장을 선임하겠다고 1년여를 논의하고서도 총장을 선임하지 못하다가, 충분한 검증 없이 총장을 선임함으로써 대학과 종단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한 것에 대한 책임소재는 분명히 가려 엄중 문책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이번 일로 훼손된 대학의 위상과 종단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우리대학의 총장을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근저지를 당한 이원우 대진대학교 총장은 "지금은 여러 가지 난제가 있어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닙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진대학교 박동기 법인이 사장은 "이사회 만장일치로 총장을 선임했다"며 "새로 선임된 총장과 이 건에 대해 상의중이며 본인의 의사에 따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아인스월드
바우어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세계 최고 건축물 테마파크 아인스월드

60일간의 프랑스여행

"아인스월드에 가면 당신이 파리지앵입니다!"

프랑스 문화에 빠져-법시대

- 김미로운 선물의 밤
 - 고풍미에 감동하는 노정미의 낭만
- 김미로운 프랑스 음식의 향연
 - 와인과 크레페의 멋진 만남
- 재미있는 연극공연
 - 프랑스의 최고 연극은 어떻게?

여러언어는 프랑스에서~

- 어린이를 위한 인형극
 - 프랑스의 클래식
- 환상의 물풍놀이
 - 자네의 꿈이 하나둘씩 이루어진다
- 최저 도우 Show!
 - 프랑스의 최고 요리사

즐거움을 함께하는 아인스월드!

- 폴리우드 키예 미션
 - 재미있게 / 재미있게
- 민법의 아인스월드
 - 자네의 꿈을 이루는 기회
- 로또콘 미션
 - 프랑스의 최고 요리사

“아인스월드에서 프랑스의 모든것을 만나보세요~이제 당신이 파리지앵입니다!”

후원

PARIS VISITE

KB

카드

바나나카드

Mr. Pizza

세계최고건축물 테마파크 아인스월드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2번지

대표전화 032-320-6000

www.ainsworld.com

인터넷 검색창에 아인스월드를 쳐보세요! 행운이 쏟아집니다!